

한글 조형 분석

Hanguel Form Analysis

1. 서론: 말소리의 해체와 분류

한글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정음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게 창제한 과정을 유추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사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한글 역시 그것을 인식하는 층위가 다양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한 소통 도구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한자 중심 문화 속 혁명으로도 볼 수 있고,^{1>} 인류학적 측면에서 무형 인류 유산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측면은 소리에 형태를 부여한 기호로서의 한글이다. 세종대왕은 나랏말^{2>}(창제 당시 기준)을 문자 기호로 표기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학과 음성학의 측면에서 한글을 바라보는 층위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한글의 사례를 통해 말소리를 시각적 기호와 연결하는 조형 원리를 분석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언어와 시각 기호의 관계를 발견하고, 나아가 체계로서의 추상 기호 표현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말소리는 “연속된 소리의 흐름으로 나타난다.”^{3>} 하나의 음절을 발음하며 입과 혀가 움직이는 양상을 살피면 하나의 음절을 소리 내는 중에도 몇 가지 다른 소리가 연속으로 흘러나옴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음성학에서는 이를 ‘소리의 연속체’라 하고, 이러한 연속된 소리를 단음으로 구분한 단위를 ‘분절음’이라고 한다.

음성학에서는 분절음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분절음은 ‘청각적 인상’에 따라 다른 분절음과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분절음은 더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단위라는 의미에서 ‘음소’라 부른다.^{4>}

음소는 청각적 인상에 근거하여 추출한다. ‘인상’ 그리고 ‘추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말소리는 오직 음절 단위로 소리가 구현될 뿐 음소는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음성학에서는 음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절을 비교·분석하여 그 청각적 인상의 차이에 착안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물’/mul/과 ‘술’/sul/은 발음할 때 소리의 처음이 다르고 나중은 같다. 차이가 나는 첫 부분을 청각적 인상으로 파악하고 이 둘을 서로 다른 음소로 상정한다. 이러한 차이를 ‘음소적 대립’ 또는 ‘음운론적 대립’이라고 한다.^{5>}

청각적 인상으로 음소를 파악하는 일은 21세기 현대 언어학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방법이지만, 세종대왕이 음운학^{6>}을 연구하고 정음을 창제한 시기인 15세기에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던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이 이와 세부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음소를 추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글의 자소 체계와 『훈민정음』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세종대왕 역시 청각적 인상을 파악하여 음소를 추출했음을 명백히 짐작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나랏말을 음소로 해체하여 초성 17개, 중성 11개로

1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김진아 외 옮김, (돌베개, 2011), pp.225-239

2

『훈민정음』 정음편 어저서문에 쓰인 표현을 따름. 한글 창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면 ‘조선어’라고 할 수도 있다.

3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2), p.67

4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연 옮김, (민음사, 1990), pp.55-56

5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김진아, 김기연, 박수진 옮김, (돌베개, 2011), p.141

6

중국에서 말소리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학문. 성음학이라고도 한다.

파악하고 종성은 초성 중 8개로 파악했고,^{7>} 이를 다섯 가지 자음과 세 가지 모음으로 분류^{8>}하여 음종^{9>}을 추렸다.

2. 본론: 한글 조형 분석

2.1. 소리를 형태로

말소리를 대상으로 한 해체와 분류 작업은 문자 체계를 디자인하는 초석이다. 이제 각각의 음종에 시각적 형태를 부여하는 상징화 과정을 살필 차례다. 상징화는 문자 체계를 만드는 조형 활동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은 얼핏 상상하기 힘들다. 이러한 소리의 상징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금에 와서 세종대왕이 겪었을 발상의 전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치밀한 논리에 따라 시각적 형태를 고안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의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기표를 기의에 결합시키는 관계가 자의적”인^{10>} 세계의 여러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각 음소에 대응하는 자소의 형태에 당위성을 갖췄다.

이 점은 한글 자소의 조형성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비 시각적인 말소리를 기의(記意, 프랑스어: signifié)로 삼아 그것에 시각적 기표(記表, 프랑스어: signifiant)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는 마치 공기를 그리려는 시도와도 같다. 이렇듯 비 시각적 대상 자체를 곧장 시각적 표현으로 전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전통적 시각예술(Visual Art),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시각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 영역에서는 은유를 통한 감각의 전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물질의 시각화를 추구했다. 시각예술 관련 학계에서는 이를 ‘시각언어’(visual language)^{11>}라는 개념으로 다룬다.

대표적인 예로 ‘사랑’이라는 무형의 기의를 ‘♥’라는 유형의 기표로 치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상징화의 이면에는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은유가 연계적으로 작동한다.

개념	은유	이미지	압축된 시각적 상징
사랑	두근대는 심장	인간의 심장 이미지	♥

[표 1]

♥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무형의 기의를 눈에 보이는 기표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은유를 통해 대상을 몇 차례 치환하는 과정, 그리고 시각적 표현을 일반화하는 ‘추상화’(abstrac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말소리,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소리를 갖지 않는 음소^{12>}를 시각적인 상징과 관계 맺는 과정은 꽤 험난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장벽은 무형의 소리를 어떤 실체에

[표 1]
기의를 기표로 치환하는 과정

7 세종대왕 외, 『훈민정음』, (정음창, 1446), 훈민정음해례: 제자해

8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p.55-56

9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p.55-56

10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94

11 시각언어(visual language)는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소통이 이뤄지는 방식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말(language)이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것에 대응하여 시각디자인학에서 고안한 용어다. 1980년대 중반 크랜브룩 아카데미의 캐더린 매킨리에 의해 탈구조주의 그래픽디자인의 중심 개념으로 소개된 바 있다.

12 음성학에서 음소란 말소리 중에서 소리의 연속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역동적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로, 음소는 청각적 인상으로 파악할 뿐,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은유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다.

『훈민정음』이 밝히다시피 세종대왕은 분류된 음종을 그것이 발생하는 “발음기관의 생리적 기준”^{13>}에 은유했다. 이는 놀라운 발상의 도약이다. 단지 기발할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자 체계가 갖춰야 할 조형 요건을 필연적으로 충족하게 해주는 탁월한 은유로 평가할 수 있다.

음소는 변별적 특성^{14>}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렇게 분류된 음소는 발음기관의 서로 다르게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15>}는 이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음의 생산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공기의 내쉼, 구강의 조음 작용, 후두의 진동, 그리고 비강의 공명이다.

[중략]

위에서 든 요인 중 다음의 두 가지는 소리의 생산에 있어 항구적이며 필요충분하다는 점이다.

(a) 공기 내쉼.

(b) 구강 조음 작용.

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없어도 좋고 위의 두 요인에 첨가되어도 좋다.

(c) 후두 진동.

(d) 비강 공명.

한편 (b)는 무한한 다양성을 내포하는 반면, (a), (c), (d)는 단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16>}

변별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 여러 음종은 발음기관의 생리적 기준에 따라 각각의 양상을 규정할 수 있다. 발음기관은 물리적인 실체이고, 이 실체는 시각적 이미지로 치환하기에 용이하다. (마치 심장이 하트가 되듯이)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발음기관의 작용방식을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을 고안하고, 이를 각각의 음소에 대응하는 일이 가능하다.

한글 자소 조형의 핵심 원리는 여기에 있다. 음소를 발음기관의 생리적 기준으로 은유하고 이를 시각적 상징으로 추상화한다. 이 전환과정을 앞선 사례에서 기술한 방식에 빗대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청각적 인상	은유	이미지	시각적 상징
/g/	해당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았다 떨어지는 동작	ㄱ

[표 2]

이러한 조형원리를 『훈민정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표 2]

한글 자소 조형의 핵심 원리

13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pp.73-74

14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p.55-56

15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스위스의 언어학자로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조로 불린다.

16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59

아음(어금닛소리) 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혃소리) 글자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순음(입술소리)
 글자 ㄹ은 입 모양을 치음(잇소리), 글자 ㄷ은 이 모양을,
 후음(목구멍소리) 글자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17>}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음의 자음은 각각의 음소가 만들어질 때 발음기관이 개폐하는 위치에 착안하여 중국 음운학이 규정한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唇音), ‘치음’(齒音), ‘후음’(喉音)^{18>}이라는 다섯 음종을 구분하고 발음기관의 생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각 음종에 시각적 상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형했다.

2.2. 한글의 추상성

한글은 청각적 인상을 시각적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추상화하는 방법을 취한다.

추상(abstract)이라고 일컫는 전통적인 시각 표현 방법은 다채로운 양상으로 분류된다. 이 단락에서는 시각디자인학에서 통용되는 추상의 일반론을 펼쳐놓고, 그 위에서 한글 자소 형태의 추상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추상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인상의 추상’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의 추상’이다. 인상의 추상은 지시 대상의 주관적 인상을 부각해 표현하고 구조적 특징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를 시각디자인학에서는 visual connotation으로 규정한다. 이와 달리 구조의 추상은 대상의 객관적 구조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인상을 지우는 식으로 표현한다. 시각디자인학에서는 이를 visual denotation으로 규정한다. 스콧 맥클라우드^{19>}가 제시한 ‘추상의 삼각형’^{20>}을 보면 이 두 가지 다른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다시피 추상화의 두 가지 다른 방향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세 꼭짓점 사이에,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개별 이미지의 추상적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인상의 추상 극단에 ‘이미지적 도상’(The Picture Plane)이 있고, 구조의 추상의 끝에 ‘언어적 의미’(language)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글 자소 형태를 발음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의 외형을 본뜬 형태, 즉, ‘구조의 추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만약 발음기관과 삼재(하늘, 땅, 사람)를 객관적 구조의 측면에서 추상했다면 [그림 2]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같은 대상을 지시하더라도 추상화의 방법에 따라 그 조형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의 추상은 발음기관의 작용과 소리의 인상을 파악하여 그 인상을 부각하고 구조적 측면을 삭제한 ‘인상의

17

세종대왕 외, 『훈민정음, 훈민정음해례: 제자해 / 김유범 외, 『대한민국이 함께 읽는 훈민정음 해례본』, (역락, 2020)

18

이를 현대 언어학에서 분류하는 바에 대응시키면 순서대로 연구개음, 치경비음, 양순음, 치경마찰음, 후두개파열음에 해당한다.

19

Scott McCloud (1960-): 미국의 만화가이자 만화 이론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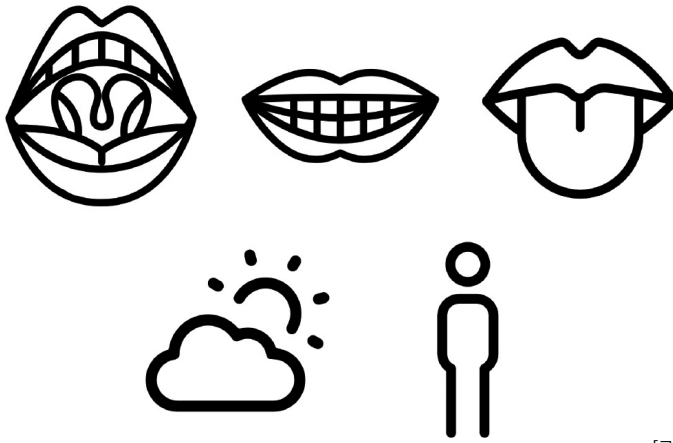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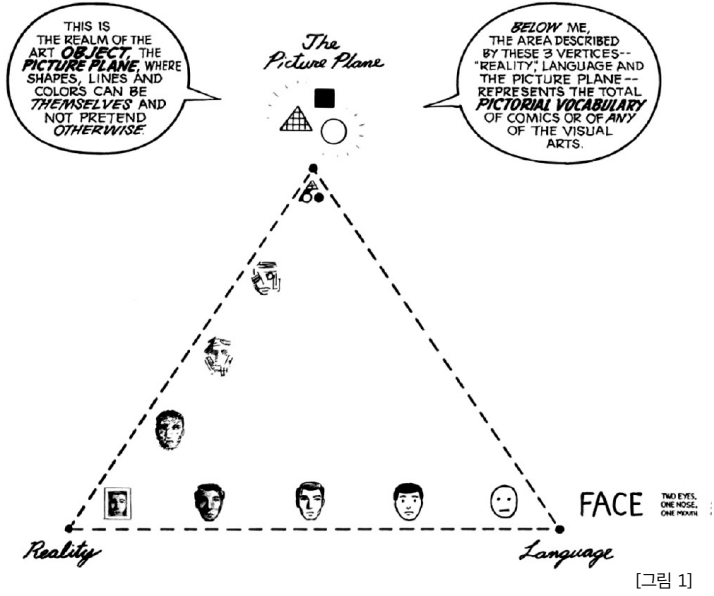
Scott McCloud,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William Morrow Paperbacks, 1994)

[그림 1]

스콧 맥클라우드가 제시한 추상화의 삼각형 모델

[그림 2]

구조적 추상의 예. 윗줄: 발음기관, 아랫줄: 하늘, 사람



추상'에 해당한다. 추상의 삼각형에 놓고 본다면 맨 위쪽 꼭짓점 가까이 위치한다.

2.3. 문자 체계의 조형 요건

문자를 순전히 조형적 사항만 떼어놓고 본다면 '형태 관계로 맺어진 일련의 기호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자는 다수의 기호로 구성된다. 로만 알파벳은 26개의 기호, 영어 알파벳은 51개의 기호, 히라가나는 48개의 기호로 이뤄진다. 낱알의 기호를 글리프(glyph)라고 하고, 글리프가 특정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것은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이룬다.

하나의 문자 체계에 속한 여러 글리프는 시각적 형식에 있어 두 가지 상반된 조형성을 내포한다. 하나는 모든 글리프가 같은 종류로 인식될 만한 형태적 인상을 공유하게 해주는 일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글리프의 구조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변별성이다.

글자 몇 개만 보고 그것이 어떤 문자 체계에서 왔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일관성 덕분이고, 각각의 낱글자를 구분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시각적 변별성 덕분이다. 한글 자소 형태는 타 문자 체계와 비교해 이러한 일관성과 변별성이 강한 편이다.

2.3.1. 시각적 일관성 (visual consistency)

문자 체계 내에서 조형적 일관성은 글리프를 구성하는 획의 수, 획의 밀도, 곡선의 성격, 기울기 등 다양한 요소로 형성된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형태는 조형적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태 모음으로 단일 문자 체계를 구성할 수는 없다. [그림 3]

2.3.2. 시각적 변별성 (visual distinction)

시각적 변별성은 시각적 대립항(visual conflict clause)에서 나온다. 일관된 형태적 규칙 내에서 어떤 하나의 조형 속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변별성이 강하게 형성된다. 전형적인 예로 화살 기호(→, ←, ↑, ↓)²¹⁾를 들 수 있다. 화살 기호는 '선분의 한쪽 끝에 뾰족한 팁을 붙인다'는 일관된 규칙으로 묶이면서, 동시에 '90도 각도로 다른 방향'이라는 조형적 대립항으로 서로 구분된다.

[그림 4]의 세 가지 형태의 경우는 같은 규칙 내에 있으나 시각적 대립항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아 변별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예시다.

2.4.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 자음 자소

이 단락은 한글의 자음 자소가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을 어떤 식으로 형상화하는지 분석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첫 번째 예로 『훈민정음』이 ‘ㄱ’의 형태를 풀이한 구절을 살펴보자.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아음ㄱ, 상설근폐후지형.

어금닛소리 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²²⁾

이 설명에 따르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다시 말해, 발음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묘사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사람이 말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이 작용하는 방식을 가장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착안점이 있다. 하나는 발음기관의 동작 양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음 위치다.

2.4.1. 동작 양상에 따른 구분

발음기관이 움직이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한 지점에서 달고 떨어지는 작용(달지 않음도 포함), 다른 하나는 열고 닫는 작용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한글은 추상적 도형을 두 가지 다른 위상으로 구분하여, 접촉 작용은 선분의 접점으로, 개폐 작용은 닫힌 도형으로 표현한다. [그림 5]

[그림 3]

시각적 변별력은 강한 반면 일관성은 찾기 어려운 형태 관계

[그림 4]

시각적 일관성은 높지만 변별성이 저조한 형태 관계

[그림 5]

발음기관 동작 양상에 따른 형태 분화.
좌측: 선분의 접점, 우측: 닫힌 도형

2.4.2. 조음 위치에 따른 파생

조음 위치는 발음기관의 동작과 더불어 음소의 청각적 변별력을 일궈내는 결정적 요인이다. 서로 다른 음종은 발음기관 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조음이 이뤄진다. 이 사항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ㄱ /g/	ㄴ /n/	ㅅ /s/	ㅇ /ŋ/	ㅁ /m/
조음점	연구개 + 혀뿌리	경구개 + 혀끝	이빨 (혀가 경구개에 닿지 않음)	목구멍	입술
정음 음종 명칭	어금닛소리	혓소리	잇소리	어금닛소리	입술소리
국제음성 기호 ^{23>} 명칭	유성연구개 파열음	유성치경비음	무성치경 마찰음	유성권설비음	유성양순비음

[표 3]

이 다섯 음종의 명칭이 조음 지점을 따른다는 점이 각각의 음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별성이 조음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한글의 기본 자음, 즉, 다섯 음종은 발음기관의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다른 기하학적 위상으로 종류가 나뉘고, 이는 다시 조음 위치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종 다섯 가지 변별적 추상적 기호로 그 형태가 결정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한글의 기본 자음 형태를 분석하면 ‘ㄱ’과 ‘ㄴ’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시각적으로 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ㅁ’과 ‘ㅇ’에서도 소리와 형태의 특징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 [그림 7]

2.5. 소리의 성질: 모음 자소

2.5.1. 자음과 시각적으로 차별

한글 모음(중성)의 조형 방식은 자음과 다르다. 반면, 음성학적 측면에서 모음 음종을 분류하는 원칙은 자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음의 경우 구강에 공기를 머금고 후두의 진동 또는 비강의 공명을 유지하는 동안 발음기관, 특히 혀와 입술이 한동안 어떤 모양을 유지하는지를 중요한 변별성으로 여긴다.^{24>}

현대 음성학은 모음의 소리를 구강 내에서 혀의 전후 위치와 높낮이,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구별한다. 일찍기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 중반에 이러한 사항을 통찰하고 있었다.

23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

24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pp.73-74: 모음의 음운에
관한 참고 자료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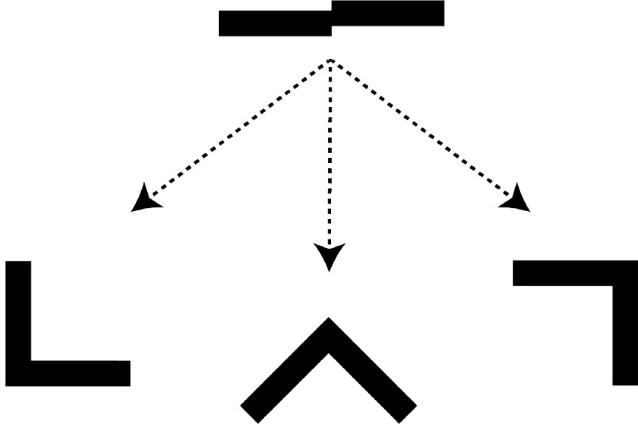
조음 위치에 따른 다섯 음종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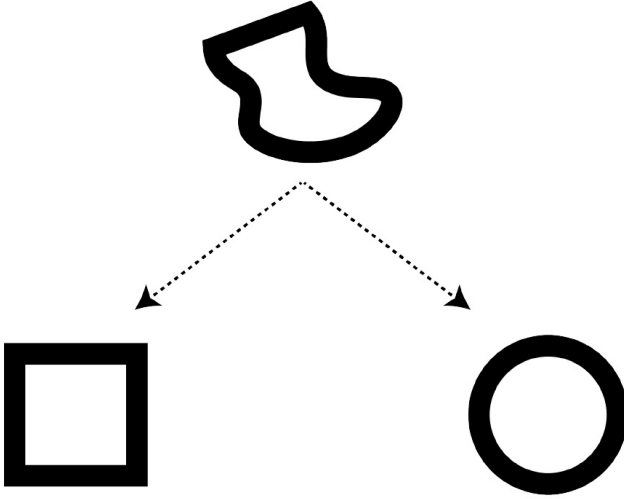
조음 위치에 따른 형태 파생: 선분의 점점 전개

[그림 7]

조음 위치에 따른 형태 파생: 닫힌 도형 전개



[그림 6]



[그림 7]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形之圓, 象乎天也。

•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움츠러들어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 원리와 같다. 글자의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25>}

발음이 유지되는 동안의 청각적 인상을 포착하는 모음의 경우, 음성이 시작되고 맺어지는 자음과 달리, 조음 시 발음기관의 개폐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음기관, 특히 입술과 혀의 작용에 따라 변별적 인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음 역시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 역시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에 바탕을 두고 조형을 고민해 봄 직하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음의 형태를 한 단계 더 깊은 개념적 은유의 차원으로 끌고 갔다. 그 주된 이유는 말소리에서 모음(중성)과 자음(초성)이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차별적 형태로 시각화하려는 의도였으리라 추측한다. 모음 자소와 자음 자소의 근본적인 형태적 차이를 뚫으로써 읽는 이가 자연스레 두 자소 군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적 차별성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식에도 적합하다.

<초성+중성+종성> 즉 <자음+모음+자음> 각각에 뚜렷한 형태를 준다는 것—이것이야말로 <문자>를 만든다는 문자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15세기 정음학이 도달해 있었던 결정적인 높이이다.^{26>}

쉽게 말해, 모음 자소는 발음기관의 작용을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자음의 조형 방식)을 배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조음 원리가 조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모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음 원리를 형태에 반영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개념적 모티브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5.2. 깊은 소리와 얇은 소리

한글 모음 역시 자음과 마찬가지로 조음 원리에 바탕을 두고 형태를 분류함으로써 청각적 인상의 성격을 구분한다.

다음은 훈민정음 제자해에 자세히 기술된 기본 세 가지 모음의 조형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形之圓,

象乎天也。

—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形之平, 象乎地也。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形之立,

象乎人也。

25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pp.73-74

26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p.154

·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움츠러들어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 원리와 같다. 글자의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조금 움츠러들어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열린 원리와 같다. 글자의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뜬 것이다.
 |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움츠러들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시에 생겨난 원리와 같다. 글자의 곧추선 모양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27>}

여기서 알 수 있는 모음 자소의 조형 근거는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1) 조음 시 혀의 위치, 2) 소리의 성질, 3) 소리의 원리, 4) 형태의 모티브.

한글의 모음 자소의 조형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는 ‘천(天), 지(地), 인(人)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은 자소의 형태적 모티브에 중심을 두는 설명인데, 위 제자해를 살펴보면 각 모음 자소의 변별적 특징은 발음기관의 작용과 이에 따른 청각적 인상에 따라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사항은 “혀가 움츠러들어”와 “소리가 깊으니”라는 구절이 되어야 마땅하다. 발음기관의 양상과 소리의 성격에 따라 모음의 형태는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그러한 조형적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 하늘과 땅, 인간이라는 삼재와 음양의 모티브를 차용했다.^{28>}

모음 자소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선 중요하게 착안해야 할 사항은 발음기관, 즉,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모음 음소를 분류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을 『훈민정음』 제자해 설명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모음 자소 형태	대응하는 국제음성기호	입모양	혀의 위치
·	ʌ	중립	입술
—	i	중립	입술소리
	ɪ	중립	앞
ㅜ, ㅠ	o	오므려짐	뒤
ㅜ, ㅠ	u	벌어짐	뒤
ㅗ, ㅛ	a	오므려짐	앞
ㅗ, ㅛ	ə	벌어짐	앞

[표 4]

규칙성이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형태적 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

1) 입모양: 모음의 기본이 되는 세 자소(·, —, |)는 입모양이 중립적이고, 이에 따라 좌우, 상하 대칭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형태를 띤다. 선본에 점을 더해서 대칭성을 깨면 이때부터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이라는 구분이 전개된다.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지는 소리는 ‘수평선+점’으로 구분하고, 입술의 긴장이 풀어지며 크게 벌어지며 나는

[표 4]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른 모음 음소 분류

27

세종대왕 외, 『훈민정음』, 훈민정음해례: 제자해 / 김유범 외, 『대한민국이 함께 읽는 훈민정음 해례본』

28

김유범 외, 『대한민국이 함께 읽는 훈민정음 해례본』

소리는 '수직선+점'으로 구분했다.

2) 혀의 위치: 수직선의 오른쪽, 수평선의 위쪽에 점을 찍은 경우는 혀가 안쪽에 위치하고, 이는 깊은 소리(양성모음)를 나타낸다. 반대로, 수직선의 왼쪽, 수평선의 아래쪽에 점을 찍으면 혀가 앞에 위치하고, 이는 얇은 소리(음성모음)를 나타낸다.^{29>}

3.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한글 자소는 1) 말소리를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과 소리의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2) 여기에 일련의 추상적 형태를 대응한 기호 체계로 그 조형원리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한글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접하는 전형적인 설명을 다시 돌아보자.

기본자 중에 자음 다섯 자는 발음 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뒀고 모음 세 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뒀습니다.^{30>}

한글 자소 본연의 조형성을 설명한다고 하기엔 다소 핵심을 벗어나 있다. 한글 조형의 본질은 무언가의 모양을 본뒀음에 있지 않다.

배우기 쉬운 문자인 한글은 무형의 소리를 유형적 형태로 전환함에 있어 섬세하고 정교한 이치를 내제 한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음성학, 시각디자인학에 속하는 여러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하지만 한글을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 논문과 같은 길고 전문적인 해설을 읽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글 조형원리의 본질을 현대의 관점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을 마무리하며, 누구나 금세 읽어 한글 자소의 조형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이 제안하는 설명문은 한글 조형의 핵심을 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핵심사항은 아래와 같다.

중요한 순서대로:

1. 소리를 형태로 변환
2. 발음기관의 생리적 작용을 표현
3. 소리의 성질을 표현
4. 시각적 일관성과 변별성이 뛰어난 일련의 추상적 기호

위 네 가지 사항을 염두하고 설명문을 제안한다.

제안 1) 한글은 발음기관의 작용과 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

29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p.175: 한국어의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음조화가 정음 디자인에 반영된 사항 참고

30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누리집 / 문화이야기 / 우리한글.
https://www.mcst.go.kr/usr/child/s_culture/korean/koreanEdu.jsp,
 (2020.10.25)

말소리에 추상적 형태를 부여한 문자 체계다.

이 제안은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문장의 구성이 복잡하다. 따라서 이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인 동시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기도 하다. 한글에 각별한 관심을 둔 사람, 또는 연구자에게 제시할 만하다.

제안 2) 한글은 발음기관이 작동하는 모양과 말소리의 성질을 본뒀다.

이 제안은 한글 자소 조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남기고 모두 생략한 설명이다. 조형 원리를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문장이 짧고 이해하기 쉽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한글에 관심이 있는 한국어 비모국어 화자에게 제시할 만한 설명이다.

제안 3) 한글은 소리를 보여준다.

이 제안은 구체적인 원리를 모두 생략하고 한글 자소의 조형적 원리 중 가장 중요한 하나만을 직설적이고 당돌하게 제시한다. 자세한 설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구절절 늘어놓기보다는, 이 제안처럼 오직 궁극의 본질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참고문헌

- 세종대왕 외, (1446), 『훈민정음』, 정음청
- 페르디낭 드 소쉬르, (1990),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민음사
- 김방한, (1992),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Scott McCloud, (1994),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William Morrow Paperbacks
- 강신항, (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 정경일, (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 노마 히데키, (2011) 『한글의 탄생』, 김진아 외 옮김, 돌베개
- 신지영, (2011), 『한국어의 말소리』, (주)박이정
- 김유범 외, (2020), 『대한민국이 함께 읽는 훈민정음 해례본』, 역락
-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누리집 / 문화이야기 / 우리한글, (2020.10.25) www.mcst.go.kr